

“로봇이 소젖 짜다”...고창군, 스마트 축산산업 선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분야 ICT융복합사업 선정 23억원 확보 로봇착유기 등 기술 전문...노동력 줄이고 생산성은 크게 증가

#1. 고창 부안면 한 유기농 축산농장. 젖을 짜기 시간이 되자 젖소들은 자동으로 로봇 착유기로 이동한다. 착유기는 젖을 완전히 짜주기 때문에 유방염 등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2. 상하면 한우농장의 농부가 TV화면을 보면서 스마트폰을 작동한다.

소들의 건강상태를 꼼꼼히 살펴보다 축사의 환경과 사료 급여량을 조절한다. 특히 암소의 발정 시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송아지 생산량이 크게 늘고 있다.

고창군이 스마트 축산산업을 선도하면서 노동력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1석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2020 축산분야 ICT융복합 사업'에 선정돼 23억원(국비 7억원, 기타 융자, 자부담 등)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전북도 축산분야 ICT융복합 전체 사업비 192억원 중 30%인 56억원을 고창군이 확보, 스마트축산을 이끌고 있다.

특히 전국 생산량의 54%를 차지하는 고창군 유기농축산은 로봇착유기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하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고창 A농장 대표는 “낙농가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착유에서 비롯된다. 착유를 위해 계절이나 날씨에 관계없이 목장에 있어야 하고 신체적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문제들이 해소되면서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태 고창군 축산과장은 “ICT융복합 스마트 축산은 농가 생산성 향상에 크게 도움을 주는 만큼 농가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겠다”며 “스마트 축산으로 해당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축산환경도 개선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축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의 한 축산농장 관계자가 로봇착유기로 젖을 짜고 있다.

〈고창군 제공〉

‘신비의 바닷길’ 전면 통제 진도군, 7~11일...축제도 취소

진도군이 ‘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신비의 바닷길을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전면 통제한다.

5일 진도군에 따르면 군은 전남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차단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신비의 바닷길 축제 취소와 함께 현장을 전면 통제한다.

진도군은 여행사와 관련 기관에 단체 관광객 모집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해 현장 통제를 홍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신비의 바닷길 현장은 회동관광지 내 주차구역에 주차금지, 불법 주정차, 캠핑가, 노점상 차량 등의 단속을 강화해 차량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른 군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회동관광지 일원에 매일 방역소독을 실시하는 등 예방활동도 병행 추진한다.

진도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부터 정정지역인 진도를 지키기 위해 방문 자제를 부탁한다”며 “내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더 일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4월의 해양치유식품 바다의 불로초 ‘뿔’ 선정 완도군, 후쿠이단 풍부 함양 효과

완도군이 4월의 해양치유식품으로 ‘바다의 불로초’로 불리는 ‘뿔’ (사진)을 선정했다.

갈조식물 모자반과에 속하는 뿔은 사슴의 뿔과 꼬리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녹미채(鹿尾菜)라고도 불린다. 3~5월이 제철이며 ‘바다의 불로초’라 불릴 정도로 갈슘과 철분, 요오드, 질,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다.

특히 시금치보다 3~4배 많은 철분을 함유하고 있어 빈혈에 효과적이다. 갈슘도 우유보다 6배 많아 골다공증 예방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은 식품이다. 뿔에는 후쿠이단 성분이 다량 함유돼 있어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뿔이 열을 내리고 담을 없애고 종양을 치료하며 부은 것을 치료한다’고 기록돼 있다.

뿔은 오독오독 씹히는 식감이 좋고 바다 향을 머금고 있어 맛 또한 좋다. 보릿고개 시절 먹을 게 없었던 섬사람들은 뿔을 뜯어와 보리에 섞어 툇밥을 먹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채본부장 ejhung@

순창군, 매운맛 프로젝트 ‘고추장 승진탕’ 출시

매콤한 ‘갈비 전골’ 소비자 입맛 공략...음식관광투어도 추진



‘매운맛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순창군이 첫 메뉴로 ‘고추장 승진탕’을 출시했다.〈사진〉

5일 순창군에 따르면 군은 지역 특색이 담긴 매운맛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매운맛 프로젝트’ 추진, 지역 8개 음식점에서 특화된 매운 음식메뉴를 개발 중이다.

첫 번째 메뉴로 ‘뜨란채’ 이진선(37) 대표가 ‘고추장 승진탕’을 개발, 소비자들의 입맛을 공략하고 있다.

‘고추장 승진탕’은 직장인들의 꿈인 ‘승진’과

순창고추장의 면역력 증대, 건강 기능성 등의 스토리를 음식에 담아냈다. 매콤한 승진탕을 먹고 힘내서 일하는 콘셉트다.

기존 갈비전골을 업그레이드해 만들었다. 소고기 갈비와 우건(무릎도끼), 버섯, 청경채, 배추 등 각종 채소에 순창고추장소스로 풀어낸 육수를 더해 매콤하면서도 담백한 국물이 일품이다.

메뉴 이름은 이 대표가 20대 시절 식육점에 근무할 당시 자신만의 갈비탕을 선보인 이후 직장

내에서 자신의 위치가 변화된 때를 회상해 ‘승진탕’이라 지었다고 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맵지만 건강한 맛. 맛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음식 개발로 순창을 차별화된 음식관광지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원광보건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문숙 교수팀과 매운맛 음식의 스토리화 및 상품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제품 개발과 컨설팅을 통해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음식을 선보일 예정이다.

순창군은 또 최근 개통한 체계산출렁다리외 강천산, 고추장마을 등을 연계한 음식관광투어도 계획하고 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밤에도 잘 보이고 경관디자인 효과까지 남원시,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 확대

시내 아파트 벽면 8곳 추가 설치

남원시가 야간에 눈에 잘 띄고 경관디자인 효과도 뛰어난 레이저형(Laser) 도로명 안내시설을 확대한다.

남원시는 주요 시내 아파트 벽면 8곳에 도로명주소를 비롯한 다양한 시정 정보를 홍보하는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남원시는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을 시의회 청사와 광한루 등 주요 관광지 7곳에 설치했다.

앞으로 시민의 수요에 맞춰 시내권 3곳과 읍-

면 5곳(운봉, 주천, 산내, 이백, 인월)에 추가한다.

이 곳에서는 도로명 안내와 함께 ‘시민의 행복 남원의 내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시의 역점사업을 홍보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한결 더 친숙한 이미지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정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시민과 관광객에게 야간 길잡이 역할은 물론 어두운 밤 곳을 환하게 밝힘으로 범죄 예방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시가 밤길을 밝히는 레이저형 도로명 안내시설을 확대·설치한다.

〈남원시 제공〉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hi 휴인(주)

문의 상담 **062) 945-0036~7**

모던 스타일 Modern

클래식 스타일 Classic

지중해 스타일 Mediterranean Sea